

월요논단



김영호 미술평론가·중앙대학교수

청년 김복진(1901~1940)이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한 1920년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서구 근대조각이 우리나라로 유입된 지 어느덧 100년을 앞두고 있다. 한국 근대조각은 일제의 식민통치라는 비운의 공간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한국사의 맥락에서 이는 감추거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조건이다. 하지만 1876년 개항 이후 나타난 시련과 갈등이 개혁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식민통치의 역사는 한국 예술의 뿌리를 형성하고 성장시킨 역설의 힘이 있다.

한국 근현대조각 100년사를 준비하자

예술이 시대의 아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한국의 근대조각사에는 격변의 시대정신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조각은 문자의 한계를 넘어선 조형 언어로서 우리의 근현대사에 숨 쉬는 미의식(kunst wollen)을 도출해 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미술사의 계보와 그를 둘러싼 미의식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은 것이다. 계보학은 특정 경향이나 사조를 구성하는 인물간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으로 정착되어 왔다. 현대 계보학에서는 인물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리(의미, 가치, 본성)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푸코 같은 학자는 진리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의식의 성숙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것이며, 지식의 구성조건으로

당대의 권력이 만들어낸 법칙이나 규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결국 현대 계보학의 맥락에서 한국 근현대조각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변화해 온 권력의 장치로서 법률, 교육, 규정, 교리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권력과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미의식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미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듯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보편적 미의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며 중국인보다 다른 속성을 지닌다. 이때 한국인의 미의식이란 일제, 해방, 분단, 전쟁, 파괴, 재건, 혁신의 물결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인 고유의 어떤 정신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 조각가들은 변천하는 시대의 권력에 순응하거나 대응하면서 자신

의 작품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미의식을 세우는데 노력했다.

시하 서울시 중구에 자리 잡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는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으로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6월 1일~7월 25일)이 열리고 있다. 한국 근현대조각 100년을 앞두고 한국 근현대조각의 계보와 미의식을 살펴보는 대규모 전시회다. 한국 현대조각의 시원인 1950년대 후반에서 오늘에 이르는 62명의 작가들이 3개의 섹션인 '비구상(추상)', '오브제·설치', '신행상'으로 나누어 소개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근대조각 파트는 영상자료로 제시된다.

한국 근현대조각의 계보와 시대별 작품에 담긴 미의식을 찾는 일은 우리의 문화지형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사설

이젠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도 높여나가야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을 일컫는 겁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제보호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돼 보물섬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제주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 지역까지 총 38만7194ha에 달합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가 곳자왓,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 육상과 해양이 포함된 제주도 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이는 기존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8만3094ha)보다 4.7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날 제주 외에도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 등 5개국의 강령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를 비

롯해 설악산·신안도도해·광릉숲·고창·순천·강원·연천 등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올해 내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확대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해 국내외에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적인 브랜드를 얻은만큼 이를 활용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는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2014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가공품 생산업체와 농가를 선정해 로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농가는 모두 21곳(29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마당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



이지운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청렴이란 무엇일까? 공무원 면접에서부터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많이 들어보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다. 첫 공무원 면접을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는 청렴이란 것이 아주 크고 거창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부정부패란 것은 몇몇 탐욕스러운 공직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저지르는 나쁜 일이라 나에게 혹은 다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같았다. 공무원이라면 청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니 청렴이란 것이 아주 가깝고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그리고 그 사소한 부락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민원을 접하고

있노라면 공직자의 요지부동한 마음가짐을 지키는 신념 또한 중요하다고 체감한다.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론이다. '나 하나쯤이야'에서 비롯된 생각이 공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멸이 아닌 공생으로 가는 길이 '청렴'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청렴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려면 나부터 실천하는 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청렴이 아닐까. 신규공무원으로 첫 걸음 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그려보며 청렴의 가치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추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삼다홀에서 주재한 '일자리 혁신위원회 출범회'에서 “도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취업과 고용을 늘리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

특히 “도정은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육성의 산실이 될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강조. 원 지사는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들을 제시하고 지원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든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조상윤기자

제주도교육청 청렴문화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와 시민단체 등 2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청렴문화제를 개최.

6월 19~23일 5일간 열린 이번 청렴문화제에서는 간주원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가가 21일 제주학생

문화원에서 '마음 속 청렴 CCTV를 켜라'를 주제로 강연하고, 22일 오후 제주시청 주변 광장에 마련된 '청렴문화존'에서는 '청렴 머그컵 디자인하기' 체험 행사 등을 진행.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제주교육의 매력인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바란다”고 당부. 표성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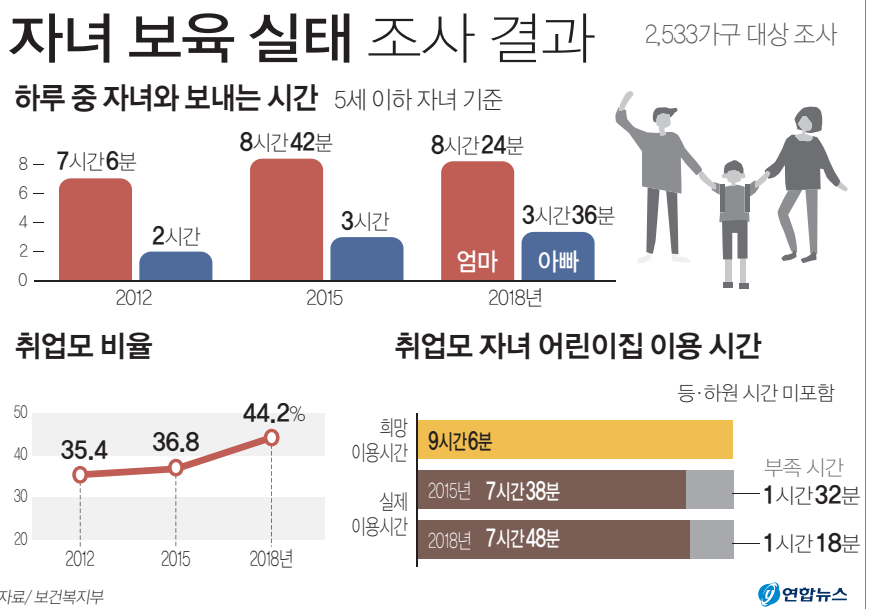
미술사 연표 누락·오기 아쉬움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 21일 개막한 10주년 기념 제주작가 조명전에 선보인 1900년대 이후 '제주미술사 연표'에 아쉬움.

2층 전시실 입구에 설치된 연표는 이날 초 문화예술공공수장과 개관까지 10년 단위로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일을 정리했는데 서귀포미술협회 창립 등 의미있는 '사건'이 누락.

특히 급하게 작성한 탓인지 제주프리비엔날레로 잘못 써놓은 제주프리비엔날레는 아무런 설명도 달지 않았고 공립 소암기념관은 소암미술관으로 적어놓는 등 오기 사례. 진선희기자

그래픽 뉴스



부고: 이종근(연세의원 원장) 아버님 전주이공영식(前 동방운수 대표이사·향년 89세)께서 수환으로 서기 2019년 6월 22일 13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인 김계숙, 아들 이종근, 며느리 장인실, 이종철, 나 강, 이종우, 박성현, 딸 이정실, 사위 강동현, 손자 이재영, 손녀 이혜림, 이재윤, 이혜원, 이서영, 이지원, 외손자 강현규, 외손녀 강현재. *연락처: 이종근 010-8630-0967, 이종철 010-3142-2876, 이종우 010-5345-8434

부고: 함진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아버님 강동함공 운종(前 추지면장, 공로연수·향년 61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23일 14시 5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아들 함진실, 며느리 김인자, 딸 함금실, 진실, 은진, 친족대표 함동윤. *연락처: 김인자 010-5188-5581, 함금실 010-9366-0706, 함진실 010-4410-9099, 함은진 010-5117-1206, 부민장례식장 742-5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권위오공 만홍(향년 7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4일. 부인 현영자, 아들 오태영, 며느리 박지원, 태현, 문정미, 태림, 윤정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순정(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4일. 아들 장시창, 며느리 한경옥, 시흥, 김애숙, 시은, 홍순실, 시성, 한정선, 영우, 송경희, 딸 장성자, 사위 홍상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풍천임씨 춘자(향년 7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4일. 아들 강경완, 며느리 임문아, 강경묵, 강경민, 사위 김희철, 강정아, 서승재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대하병원 임상결과 및 50선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신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성물(향년 8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4일. 아들 김운수, 며느리 이현숙, 딸 김미숙, 사위 김효중, 미정, 박상원, 미희, 문창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태열(향년 9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4일. 아들 고임수, 며느리 장정희, 탄해스님, 박정행, 경수, 김명수, 태수, 김선아, 딸 고신자, 사위 강정봉, 복득, 김희, 문창수, 영미, 김성훈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병옥(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4일. 아들 한동석, 며느리 부혜자, 딸 한혜숙, 사위 김상용, 신숙, 김복준, 영숙, 김태완, 매숙, 배석한, 선숙, 양경원, 광숙, 이군휘